

# “호남지역 농산물 유통 메카 자리매김”

## 가격 보장제로 ‘농산물 제값받기’ 주력

### ■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 김 훈 사장

“광주공판장이 명실상부한 호남지역 농산물 유통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
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소속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은 지난 2004년 서구 매월동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, 호남권 농산물 유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.

이 중심에는 김훈 사장(56)이 있다. 지난해 취임한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지난 1987년 농협에 입사, 오랜 기간 은행 업무를 맡아왔다.

사내에서 실적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보험왕과 카드왕에 이름을 올리는 등 승승장구 했지만 농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입사당시를 회고하며 7년 전 경제사업장으로 옮겨

다. 이후 수완지구 하나로클럽(광주유통센터)과 광주농산물물류센터에서 유통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도매사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많은 기여하며 사내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.

김 사장이 이끄는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은 지난해 2004년 매월동 서부농산물시장에 입주, 첫 매출이 500억 원에 불과했다.

지난해 1,415억 원의 경매를 통한 판매 매출을 거둬들이며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.

김 사장은 올해 수익목표를 1,500억 원으로 세웠다.

김 사장은 “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 산지 조성과 중도매인 및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략적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



강화하고 있다”며 “많은 우수출하처 확보와 중도매인의 분산처 개발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, 그리고 중도매인과 소통 강화를 통한 선도공판장 구현을 올해 중점 목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김 사장은 또 중도매인과 공판장 종사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판장-중도매

인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하는 등 함께 노력하는 선도공판장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, 범농협 전사적 운동인 농산물 제값받기를 통한 농가소득 5,000만원 조기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쏟고 있다.

김 사장이 가장 역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사업이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이다.

현재 김 사장은 출하품목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해 참외, 감자, 고구마, 양파, 미나리, 청양, 간마늘 등 9개 농가와 ‘공판장출하가격보장제 MOU’ 체결했다. 앞으로도 주산지와의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김 훈 농협광주공판장 사장은 “유통 주체인 중도매인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제고 및 농산물 제값받기를 통한 농가소득 5,000만원 조기달성에 공판장 종사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농협공판장을 이끌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/이나라 기자



### KT, 다문화가정 가전제품 지원

전남도와 전남복지재단은 10일 (주)KT가 다문화가정 100가구에 1,800만원 상당의 전기레인지(인덕션)와 전용냄비세트를 전달했다.



### 광양제철초 환경동요축제

광양제철초등학교는 최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광양제철초 호연관에서 ‘제14회 광철초 환경사랑 환경동요 축제’를 개최했다.



### 농협광주공판장, 농가 일손돕기 ‘구슬땀’

농협광주공판장(사장 김 훈)은 최근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성군 진원면의 토마토 출하 농가인 김상용씨의 비닐하우스를 찾아 일손돕기에 앞장섰다.



### (사)코코넛, 전남과학대 인성교육 성료

사단법인 코코넛(대표 박장용)은 최근 전남과학대학교 특전부사관과 재학생 49명에게 인성교육을 진행했다.



### 광주세무서, 무등산 평촌마을과 자매결연

광주세무서(서장 전태호)는 무등산 평촌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.

평촌마을은 마을주민 전체가 무등산수박 재배 등 공동생산·공동판매하고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돼 있다.

광주세무서는 이날 협약식 체결이후, 세무서 법인분야 근무직원 및 재능기부 ‘나눔세무사’와 함께 마을주민과 영농조

합법인 관련 세무상 애로사항을 듣고 컨설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.

전태호 광주세무서장은 “자매결연마을뿐만 아니라 화순, 곡성 등 원거리지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‘나눔세무사’와 함께 찾아가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”고 밝혔다.

/서미애 기자



###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내 학술대회 개최

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지난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(서울)에서 ‘수목화 담론의 성찰과 미래적 가능성’을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.

국내 수목작가, 미술평론가, 대학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한 학술대회는 한국 근현대 수목담론,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조선헌화 논쟁, 동시대 동양화를 보는 한 시선, 공론의 장으로서 비엔날레의 가능성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

진행됐다.

김상철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“이번 국내학술대회는 수목화 담론의 현재를 진단하고, 국내 수목화 창작·비평·교육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의 장이었다”고 말했다.

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‘오늘의 수목’ -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, 진도 윤립산방 일원에서 개최된다. /정근산 기자

## 6·13 지방선거 레이다 D-2

### 구충곤, 농민수당제 등 9가지 공약 실천 약속

구충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지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와 농업공약 실천 협약식을 갖고,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·발전시키기 위한 농업공약 실천을 약속했다.

농업 정책 협약서에는 ▲농민수당제 시행 및 수당 지급 ▲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시행 ▲화순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▲쌀 1kg 3,000원 및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▲쌀 생산조정제 대체한 통일쌀



경작사업 추진 ▲농민헌법 제정 노력 ▲농지이용실태 조사 ▲화순군 쌀 생산비 조사 ▲화순군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담았다.

구 후보는 “이번에 협약한 농업정책들은 꼭 실천해 농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 /화순=서호령 기자

### 김호산, 마을협동농장 등 자립형 복지 약속

김호산 민주평화당 무안군수 후보는 10일 “‘사회복지 공동체가 지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 실현’을 위한 맞춤형 정책공약이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”고 밝혔다.

김 후보는 “노인공약은 노인유권자들의 표심 끌기 위한 환심성 공약이 아니라,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 공약이다”며 “노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누리지 못한 행복추구권을 김호산이 드리고 싶다”고 강조했다.

김 후보는 이어 무안군 노인의 사회



적 관계 회복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마을협동농장 소일거리제공 등 노인 자립형 복지실현의 세부 공약을 내세웠다. 또 지역경로문화센터와 연계한 경로당 활성화,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자립형 복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. /무안=박주현 기자

### 강인규 “다함께 잘사는 나주 만들겠다”

강인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는 지난 9일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나주 장터와 송월동, 죽림동, 대호동 등 원도심 지역의 아파트, 상가, 골목 등을 누비며 “다함께 고르게 잘사는 나주를 만들겠다”며 지지를 호소했다.

강 후보는 민선 6기 ‘역사문화관광도시’ 등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‘나주읍성권 도시재생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. 그 결과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



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‘다함께 고르게 잘사는 지역’, ‘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나주’ 등의 공약을 내걸고, 지난 민선6기의 성과와 원도심에 잠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. /나주=신종기 기자

### 박우량, 냉장보관시설 전수조사 실시

박우량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“소형 저온 저장고를 설치한지 5~12년이 돼 노후화로 인한 화재 위험과 보수 지연 시 발생하게 되는 과도한 농여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박 후보는 “전문업체로 하여금 냉장보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겠다”면서 “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안군에서 전액 부



담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박 후보는 “전수조사된 결과에 따라 전면 보수를 실시하고, 각종 부품비와 보수비는 처음 설치 시 지원했던 기준 인 50%를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 /신안=이주열 기자

### 고길호 “복지회관 점질방 지속 추진”

고길호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“문화·복지시설이 열악한 읍·면에 점질방을 설치해 현상의 가치가 존중 받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복지회관 점질방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고 후보는 “복지회관 점질방 15개소 중 3개소 완공, 추진중 11개소, 미추진 4개소를 올해 말까지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등 건강증진은 물론 주민들의 소



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고 후보는 “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행복더하기 노인교실, 노인 돌봄 서비스, 무료 급식 등을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/신안=이주열 기자

### 박병동 “민선 6기 국비사업 차질없이 추진”

박병동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후보는 지난 9일 ‘민선 6기 장흥군 국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’는 정책공약을 내놨다.

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“장흥군은 각 실과소별로 농·어·축·임·산업 육성, 주민복지 향상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22건의 국비사업(국비지원사업)을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총사업비는 6,025억원으로 이중 73%인 4,415억원을 국비로 확보



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 박 후보는 “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622억원(2월 기준)으로 나머지 3,793억원 중 중앙부처와 민주당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 추진하겠다”고 약속했다. /장흥=이육현 기자